

육지가

물을 둘러싼
공간,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소장

압해읍종합복지관

개요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8-1
용도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554m ²
건축면적	604.07m ²
연면적	1,436.47m ²
규모	지상 3층
높이	13.2m
건폐율	10.88%
용적률	25.8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	유현준,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허진성, 손인실, 박정규, 권진희, 함승호
구조설계	다우구조
기계설계	(주)민성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전기설계협인
시공	중산건설(주)
설계기간	2013.10.~2014.11.
시공기간	2014.12.~2016.3.
건축주	신안군청



암해읍종합복지관의 정면





압해읍은 섬 마을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개펄은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지만
매일 물일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일터일 것이다.

압해읍종합복지관의
중정은 육지가 물을
둘러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부지향적인
이 공간은 바다에
둘러싸여 사는
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압해읍종합복지관



압해읍종합복지관의
1층 중정과 징검다리



© 박영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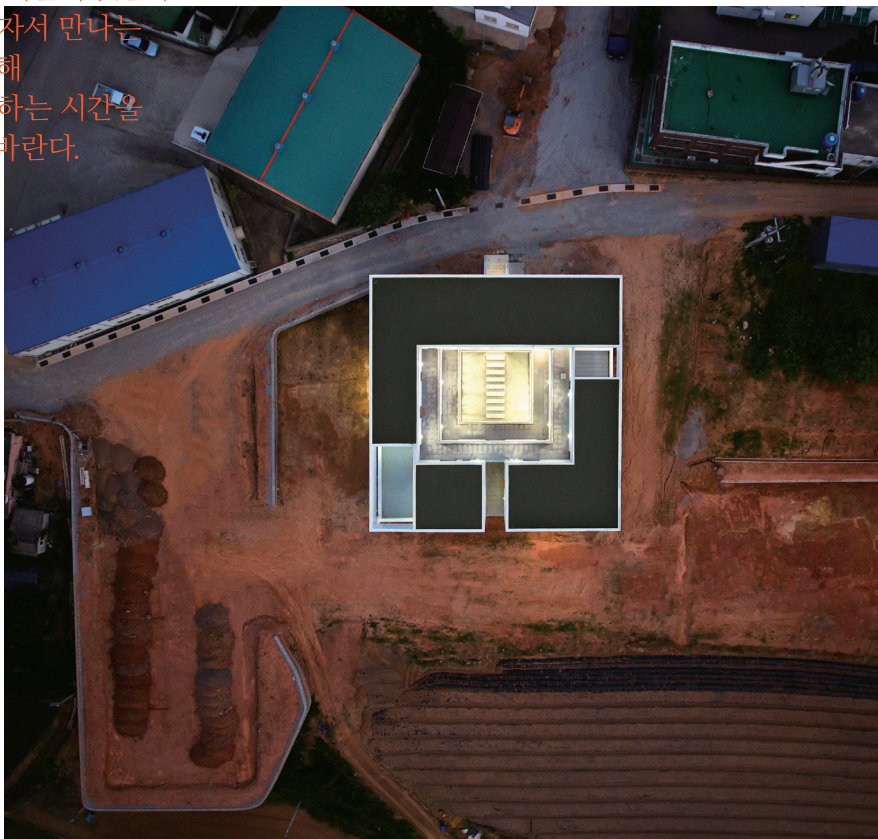


© 박영채

상 1층 중정
좌·하 2층 야외복도
우·하 2층 복도

사방이 물로 채워진
중정의 한가운데서
징검다리를 밟고 올라다보면
콘크리트로 프레임된
하늘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을 혼자서 만나는
체험을 통해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 박경재

하늘에서 본
압해읍종합복지관

섬에 건축하기

압해읍종합복지관은 신안군 압해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건축가가 어떻게 신안군의 섬까지 가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신안군과의 인연은 신문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전에 공주시와 인연이 닿아 지은 마을회관이 조선일보에 실린 적 있다. 그 기사를 보시고 당시 박우량 신안 군수가 연락을 해 왔다. 멀지만 신안까지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축가를 찾는 분과는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우선 땅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벌였다. 압해도에 짓는다는 결정은 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지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두 땅이 물망에 올라 섬에 내려가서 구경을 하였다. 압해도는 워낙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어느 곳에 짓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았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땅은 압해읍사무소 뒤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새로 주차장이 생겨나고 주변에 새롭게 압해읍사무소도 지을 계획이 있는 땅이었다. 향후 읍의 공공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곳에 모아두면 좋겠다는 게 군의 견해였다. 대지가 정해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시골에 건축하기

우리가 지어야 할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중목욕탕과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식당, 그리고 강당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무실 등이었다. ‘압해읍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처럼 복지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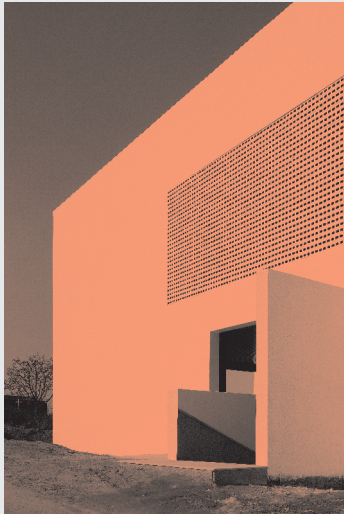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여기에 건축을 하면 어느 유명한 리조트 못지않은 멋진 시설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경치가 좋아서였다. 테라스에 앉아서 개펄 너머 바다를 물들이는 낙조를 바라보는 상상도 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공주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얻은 교훈이 생각났다. 필자는 공주시에 여섯 채의 마을회관을 지은 경험이 있다. 처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대지 주변의 자연경관에 매료되었다. 특히 처음에 지은 마을회관은 논 옆에 있는 땅이었다.

© 박영재



상 압해읍종합복지관의 정면
하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압해읍종합복지관



©비영체

정면 주출입구(2층)

필자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하는 논을 좋아한다. 논은 봄철이 되어 모내기 준비를 하면 물을 담는다. 물이 담긴 논은 하늘을 반사하는 모습이 마치 타지마할이 비치는 물길을 보는 듯하다. 그러다가 모내기가 끝나고 몇 주 지나면 잘 가꾸어진 잔디밭처럼 파랗다. 여름철이 되면 벼의 키가 자라면서 볼륨을 가진다. 가을이 되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모습이 우아하다. 가을 들녘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땅 원래의 비어 있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다른 어떤 조경보다도 논은 이처럼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어르신들의 방을 모두 논을 향하게 하고 창문을 크게 내었다. 마루의 높이도 벼가 중간쯤 자랐을 때 정도로 맞추어서 변화를 더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마을회관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 시골 어른들이 논을 향해 나 있는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바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유를 들어보니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는 농부 어른들은 쉬면서 지켜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눈에 보이는 잡초를 뽑아야 할 것 같고, 그 밖에도 계속 할 일이 생각이 나서 맘 편히 쉴 수가 없다고도 하였다.

‘아차’ 싶었다. 생각해 보니 나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논이 자연이지만 농부에게는 논은 일터인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필자가 만든 마을회관은 마치 휴게 카페를 만들면서 부장님이 앉아 계신 사무실을 향해 큰 창문을 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을회관을 설계할 때 창문을 논 쪽을 향해 크게 내지 않았다.

이 교훈은 압해읍종합복지관을 설계할 때 중정형으로 계획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었다.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와 개펄은 가끔 찾아오는 나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지만 매일 물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터일 것이다. 그래서 경치가 펼쳐져 있지만 그 경치들이 보이지 않게, 내부 지향적으로 중정형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중정이 만들어지면 그 마당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다.

물에 둘러싸이다, 물을 둘러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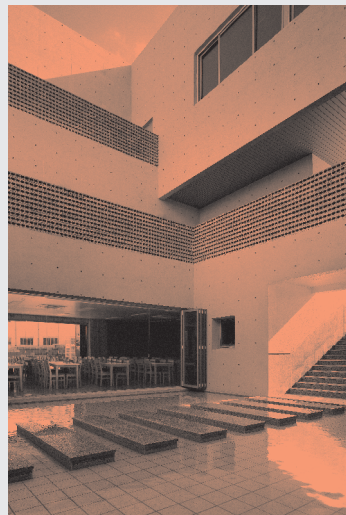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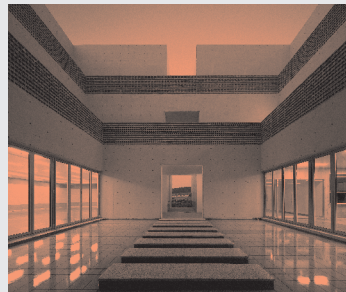
우리의 한옥에서 중정마당은 흙으로 덮여 있고 그 공간을 결혼식이나 타작마당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압해읍종합복지관의 중정도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흙 대신에 물을 채웠다.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지의 특성 때문이다. 이 건축물은 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나 배를 타고 다닐 때나 항상 물에 둘러싸여 있다. 필자는 육지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물에 둘러싸여 사는 그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답답할 것은 분명해 보였다.

물을 집합 A라고 보고 땅을 집합 B라고 본다면, 섬 주민들이 느끼는 공간은 항상 물이 땅을 포함하고 있는 ' $A \supset B$ '의 관계이다. 그래서 적어도 압해읍종합복지관에서는 ' $A \subset B$ '의 공간적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압해읍종합복지관의 중정은 육지가 물을 둘러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공간이 섬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 같아서이다. 그 외에도 중정을 물로 두었을 때 얻고자 한 것은 하늘을 조용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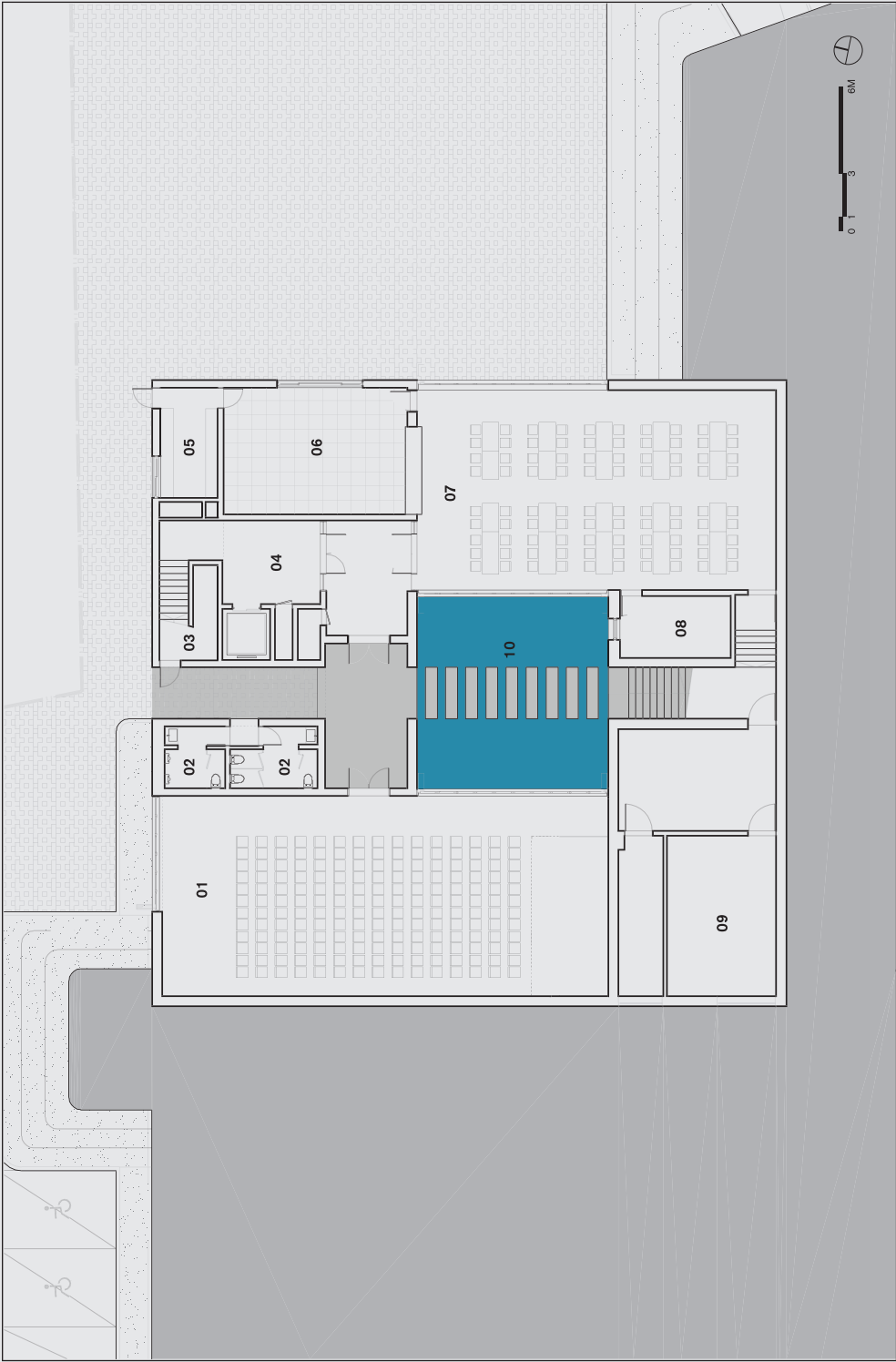
우물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

이 건축물은 경사대지에 위치해 있다. 진입하는 곳에서 1층으로 들어서도 실제로 그곳은 건물 전체로 보면 2층의 높이이다. 수공간으로 만들어진 중정은 입구에서 보면 한 층 아래 레벨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구는 정면 입구가 2층에 있고, 그 축선을 따라서 한 층 내려가면 수공간 중정이 있으며, 그 수공간을 가로질러서 건너간 후에 우측으로 가면 식당이 나오고 좌측으로 가면 강당이 있다. 그리고 직진하면 후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목욕탕은 2층 레벨에 좌·우측으로 남녀 목욕탕이 배치되어 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강당이나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공간 중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콘크리트 벽면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진 난간에 의해서 프레임되는 하늘을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의 경험이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1층 중정과 집결다리



- 01 홀
- 02 화장실
- 03 창고
- 04 로비
- 05 부식창고
- 06 주방
- 07 식당
- 08 휴게실
- 09 기계실
- 10 중정 수공간

남
동
향
0
°
0
′
0
″

필자는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항상 혼자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한다. 인간이 지닌 큰 가치 중 하나가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러한 질문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필자가 세상을 혼자서 만나는 공간적 체험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수공간 안에 앉아 있는 순간이 그 순간이다.

수공간은 징검다리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의도는 그 징검다리 하나에 잠시 서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수공간을 연속된 다리로 지나간다면 그 공간은 통과된 공간이 된다. 대신에 징검다리는 ‘점선’의 공간이다. 연결된 선이 아니라 띄엄띄엄 놓인 순간의 연속이다. 필자는 방문객들이 그 징검다리 돌 위에서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원하였다.

더 밝고 집중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테라스는 한 층씩 올라갈수록 폭도 폭만큼 셋백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정에 더 많은 햇빛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모 안에 네모가 들어가 있는,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의 그림처럼 공간의 집중을 연출해 보고자 하였다.

엄마의 뱃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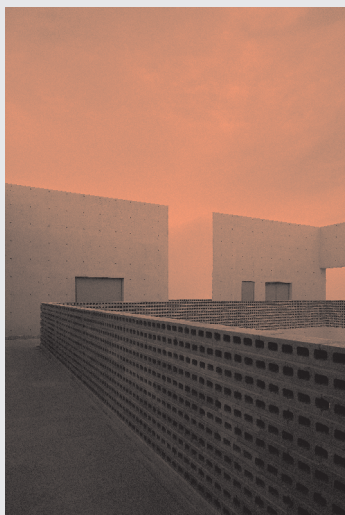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도 목욕탕일 듯하다. 온수를 쓰기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중목욕탕은 공동체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값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체험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기에 싸여 땅 위에서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생명체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엄마의 뱃속, 그것도 물속에서 살았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SF영화 ‘심연’을 보면 특별한 잠수복이 나온다. 심해에서 입는 그 잠수복은 산소가 들어간 물로 채워진 잠수복이어서 사람이 물로 숨을 쉰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가 “우리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이다.

그렇다. 우리는 물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목욕은 잠시나마 그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옷을 벗고 몸의 대부분을 물속에 담그고 있는 것은 시간을 돌려 태아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순간은 곧 ‘혼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바깥 경치를 보는 시간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비영체



상 2층 복도
하 2층 야외복도

보아야 할 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제한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뱃가죽을 통해서 들어오는 흐린 빛을 보는 듯한 경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목욕탕 욕실 내의 모든 창문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막히고 작고 많은 구멍을 통해서 필터가 된 햇빛만이 들어오게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압해읍종합복지관은 창문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뚫린 건축물이 되었다.

공간의 중첩

기본적으로 ‘口’자 형태로 된 평면이지만 이들 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 관통해서 엮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한 공간이 1층에 위치한 ‘강당 - 수공간 - 식당 - 마당’의 공간이다.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건물은 ‘부침개를 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공주시에 서 마을회관을 디자인하면서 모든 건축주 분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마당에서 마을잔치 때 부침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식당이나 부엌은 보통 때는 실내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면 되지만, 마을잔치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릴 때에는 공간이 마당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압해읍종합복지관에서는 중정이 수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당은 식당 앞의 주차장 공간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폴딩도어를 다 열면 강당에서부터 수공간과 식당을 거쳐서 주차장 마당까지, 확장된 하나의 큰 공간이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중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면 수공간의 물을 빼고 사용하면 되도록, 수공간은 낮에는 물로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반전의 공간

필자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식스센스’ 같은 영화 말이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을 할 때도 겉에서 바라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의 공간체험이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 그 내부의 공간체험이 더욱 극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디자인은 대학교 시절에 한 설계작품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대학원 시절 루이스 칸(Louis Kahn)의 ‘필립 엑

서터 도서관(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을 본 다음부터 더 심해졌다. 이 도서관은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벽돌 건물이다. 아무도 그 내부에 6층 높이의 대형 노출콘크리트 공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한다. 벽돌 건물 안에 숨겨진 대형 보이드 공간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그리고 노출콘크리트의 느낌은 정말 강렬하였다.

그런 경험을 압해읍종합복지관에서도 연출해 보고 싶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외관재료와 내부재료는 다른 것을 사용하였다. 섬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는 높지 않은 기술력으로도 무리 없이 시공 가능한 드리이비트 마감을 사용하였다. 대신에 내부에는 엑서터 도서관의 로비공간처럼 큰 보이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 그 공간의 마감재는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이 건물이 어떤 구조체로 만들어졌는지 구성된 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노출콘크리트 벽체가 이 건물의 심장부를 완성하는 재료이다. 그리고 노출콘크리트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간도 콘크리트 블록으로 사용하였다.

난간까지 벽체로 하면 너무 무겁고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난간 부분은 블록의 구멍 면이 옆으로 드러나게 쌓았다. 그 구멍들이 연출하는 그림자와 빛들은 중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프레임하는 강조 효과도 가져왔다. 외부에서 보면 흰색 박스 덩어리에 몇 군데 구멍이 나서 ‘뒤흔?’ 하는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좌우대칭 노출콘크리트 공간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체험. 그것이 필자가 원하던 반전의 시퀀스이다.

압해읍종합복지관에서 섬 주민들은 편안한 안식과 명상을 할 수 있고, 찾는 모든 이들이 중정 수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비영체



상 하늘에서 본 압해읍종합복지관
하 정면 및 좌측면